

제26회 공인노무사 시험 민소법 예시답안(간략)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르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례 위주로 간략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단문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므로 생략됨).

제1문

설문 1

설문 1에서 질문은 ‘병이 보조참가한 전소의 갑 청구인용의 확정판결이 후소에 효력을 미치는지’를 물었습니다.

1. 일단 질문 자체에서 병의 지위가 보조참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전소에서 병의 지위를 별도 목차로 해서 정리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일 저 문구가 없었다면 전소에서 병은 참가인인데, 그 중 어느 참가인인지를 참가의 유형을 검토하여 보조참가인임을 밝혀야 하지만, 본 문제에서는 이 논점은 굳이 안 쫓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결국 본 문제는 민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참가인에 대하여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떠한 요건과 범위 하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이 그 배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77조 재판의 효력의 성질,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범위의 문제, 배제되는 경우의 문제를 검토한 후,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보조참가인인 병에게도 미치게 되어 을과 병 사이의 후소에도 미치게 된다’가 결론입니다.

3. 본 문제에서, 전소에서 보조참가인 병의 지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논하는 것도 묻지 않은 논점들입니다.

설문 2

설문 2에서 질문은 ‘판결은 병의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1. 설문에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는지를 물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다만 당사자 아닌 자에게도 미치는데, 승복담탈입니다. 그런데 사안은 승복담탈은 아닌바, 문제는 병이 간과판결의 당사자였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승계긍정여부를 논합니다. 물론 당연승계긍정설의 입장에서 논하여야 합니다. 당연승계를 긍정한 결과 소송계속 중 병이 사망하였어도, 그 소송의 당사자는 이제는 병이 아니라 병의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병의 상속인은 당사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2.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판결이 무효가 되어 버리면 효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과판결이 무효인지를 검토합니다. 간과판결의 무효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판결이 위법함을 찾아야 하고, 위법하다면 무효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위법함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판결의 위법함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면 소송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음에도 그대로 변론을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히 중단되었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단여부와 중단의 효과를 검토하여 중단되었고, 중단사유 발생시 모든 소송절차가 중단됨을 적시하여 중단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4. 그 후 위법한 판결의 효력을 논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당사자대립구조문제를 적시하면서 일단 위법하나 유효한 판결일 뿐이고, 따라서 상속인은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도출하여 결론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일단 상속인에게 미친다(다만,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사례해결을 위한 팁

사례 문제를 해결할 때의 핵심은 질문에서 출제자가 질문한 것이 무엇이나부터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논점이라도 질문에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풀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설문 2의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안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